

클린하우스 없었더니... 주말엔 산더미 쓰레기

표선지역 한 클린하우스에 미분리 쓰레기 배출 되풀이 도로 공사로 철거 인근 클린하우스 재설치 추진도 난항 "요일별 배출 가림막 없고 관리 소홀로 수개월째 고통"

"클린하우스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주말이 되면 차마 못 볼 지경입니다. 분리배출 안 된 쓰레기들을 마구 버립니다. 시청과 면사무소에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쓰레기들이 날리고 악취가 나면서 얼마 전에는 해충 방역을 하고 있는 근처 식당에서 손님들이 앉은 자리에 바퀴벌레까지 돌아다녔어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클린하우스, 지난 주말 수거함 밖까지 층층이 쌓인 그곳의 쓰레기들을 촬영한 사진을 한라일보에 보내온 A씨는 "수개월째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 쓰레기를 편리하게 한곳으로 배출하고 수거하기 위해 클린하우스를 만들었지만 시민들의 무단 투기에 더해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다.

A씨는 "주말엔 클린하우스 근무자들이 없어서 쓰레기 배출 상태가 더 심각하다"며 "오후 3시부터 쓰레기를 내놓으라는 안내문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수거함을 항상 열어두는 등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표선면에서는 1년 전쯤 인근의

클린하우스 1개소가 도로 공사로 철거돼 이번 일이 빚어진 걸로 보고 있다. 주민들이 가까운 배출 장소를 찾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클린하우스로 쓰레기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표선면은 철거했던 클린하우스를 재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에는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표선면 측은 22일 "민원이 제기된 클린하우스에는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2명 배치하는 등 다른 시설보다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관리하고 있지만 주 5일제여서 주말에는 근무를 꺼린다"며 "클린하우스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돌려 과태료 부과와 계도를 하고 있다. 우선 해당 클린하우스에 가림막을 설치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 클린하우스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378개소, 2023년 350개소에서 올해는 7월 현재 326개소로 줄었다. 상시 배출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재활용 도우미센터가 새로 생기면 그 일대 클린하우스를 일부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거점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클린하우스에 지난 21일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버린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형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클린하우스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표선면의 사례는 도로 공사로

불가피하게 철거됐던 만큼 주민 동의가 있으면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언론노조 제주협의회, 사업장서 대도민 선전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협의회가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대도민 선전전을 이어 가고 있다.

언론노조 제주협의회는 지난 15~16일 제주MBC와 제주도청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한 데 이어 사업장별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선전에 동참하는 협의회 소속은 CBS제주지회, JIBS제주방송지부, KBS제주지부, MBC제주지부, 뉴제주일보지부, 제민일보지부, 한라일보지부 등 모두 7곳이다.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후보는 문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방송 홍보국장, 기획홍보

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당시 문화방송 민영화 밀실 추진, 노조 탄압 연루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부현일 제주협의회 의장(JIBS 제주방송지부장)은 "편향된 시각으로 5·18과 세월호 사건을 폄훼하고 문화·예술인을 좌우로 갈라치는 후보가 방통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부역자이자 민주언론을 탄압하는 이진숙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이적단체 결성 혐의 피고인측 법관기피 신청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지역 진보 계열 인사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 도내 진보계열 인사 3명이 지난 12일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최근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다른 판사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강씨 등 피고인 3명은 검찰이 법원의 증거 열람 등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동영상, 사진 등의 원본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 자신들의 방어권을 침해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검사측의 증거조사 방

식을 인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씨 등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도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발표해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재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검찰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지법은 검찰 측과 변호인단이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피고인 3명은 지난 2022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 결성 지침·강령·규약을 하달 받아 이적단체 'ㅎㄱㅎ'를 꾸려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성평등목표 형식적? 성인지감수성 높여야"

제주도여가원, 제주도 양성평등담당관제 연구 결과 제도 내실화 위해 부서별 목표 수립 체계화 등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분청을 비롯해 행정시, 읍면동의 성평등한 정책 집행을 위해 '양성평등담당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서별 성평등목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여성가족연구원은 22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으로 2019년부터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해 제주도 분청 83개 부서를 시작으로 2020년 행정시, 2021년 읍면동 등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212개 부서장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담당관의 역할도 넓어졌다. 부서별 성평등목표 수립에 더해 성인지 정책 전달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성평등목표 수립 절차 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16개 부서, 41명을 대상으로 조점집단면접(FGI)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평등담당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4.4%에 그쳤다. 이에 반해 성평등목표 수립 절차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에는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7.8%로, 10%p 이상 더 높게 나왔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성평등목표를 수립할 때 부서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거나 회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제도 내실화 방안으로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4년 주기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절차 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김지은기자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